

나주 빗가람호수공원 힐링공간 새단장

옥잠화·장미 가을까지 꽃의 향연
60m 길이 폭포 설치 시원함 선사
산책로 주변엔 다양한 정원 조성

나주 빗가람호수공원이 낭만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주시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혁신도시 랜드마크인 빗가람 호수공원에 꽃을 심어 새로운 경관 명소를 조성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원한 폭포수와 다양한 테마 정원, 계절마다 달리 피는 형형색색의 꽃들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배메산 건강둘레길엔 계절에 맞춰 심은 옥잠화, 노루오줌, 가우라 등 약 65만본의 꽃들이 산책로를 환하게 물들이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여기에 수국 1만본, 장미 1만5000본이 공원 곳곳을 가을철까지 화려한 꽃의 향연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호수공원 유아 숲 인근엔 60m길이 경관 폭포를 새롭게 설치, 숲이 우거진 그늘에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다. 경관폭포는 오는 10월 말까지 12시부터 21시 30분까지 30분씩 가동된다. 호수변 산책로를 걷다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테



나주시가 혁신도시 랜드마크인 '빗가람 호수공원'에 계절꽃 65만본을 식재하고 경관 폭포, 테마 정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노을정원과 연결된 웨딩 정원 '로맨틱 아일랜드'.

마 정원들도 눈길을 끈다. 호수가에 비친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노을정원'과 징검다리로 이어진 작은 섬에 조성한 웨딩정원(로맨틱 아일랜드)은 프러포즈, 데이트, 인생 사진 촬영 장소로 제격이다. 최근에는 유아숲 앞 호수변에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개장해 동아리,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 공

연이 열리고 있어 볼거리를 더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국 호수공원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빗가람호수공원은 다양한 식생과 산책로,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라며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낭만과 행복이 가득한 호수공원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청년들 '놀고·먹고·쉬는' 공간으로... 화순 '청춘오름' 탈바꿈

자율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편
청년 13명 서포터즈 발대식도

화순군이 청년의 삶을 지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카페 '청춘오름'이 놀고, 먹고, 쉬며 교류할 수 있는 자율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면 개편됐다. 청년카페 '청춘오름'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스터디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감성 소통 중심의 청년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청년하우스 1층에 마련된 이 공간은 독서·스터디·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리뉴얼됐으며, 매주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실내에는 커피머신, 스낵바 등 음료 및 다과 무료 이용 공간과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도 비치돼 청년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청년 재테크, 보이스 트레이닝, 집단 심리상담, OA 활용법 등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청년카페 '청춘오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일 청년카페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카페 서포터즈는 15세~39세의 청년정책과



지난 12일 화순군 청년카페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홍보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총 13명이 모집됐다. 이들은 청년카페 '청춘오름' 홍보는 물론 청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간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독서토론 모임, 화요일 일상 속 탈출 이색 대화, 수요일 영화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주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QR 접속 및 고용 24 청년성장프로젝

트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춘오름(061-870-7785)에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카페 청춘오름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의 비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카페 이용뿐 아니라, 초기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기반 확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치매 어르신들 기억 되살린 '메모리얼 사진관'

담양군 치매안심마을 추억 나들이
죽향사진동아리 자원봉사자 참여

교복을 입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어르신들의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불러냈다. 담양군은 '담양 추억의 골목' 일원에서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메모리얼 사진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9일에 시작해 22일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금성면·고서면·장평면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담양

군 공직자 사진동호회인 '죽향사진동아리'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르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어르신들은 교복을 입고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의 익숙한 풍경과 감정을 함께 나눴다. 이 순간이 담긴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담양문화회관에서 전시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기억을 되새기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담 전경.

장흥군, 장흥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불법행위 예방 순찰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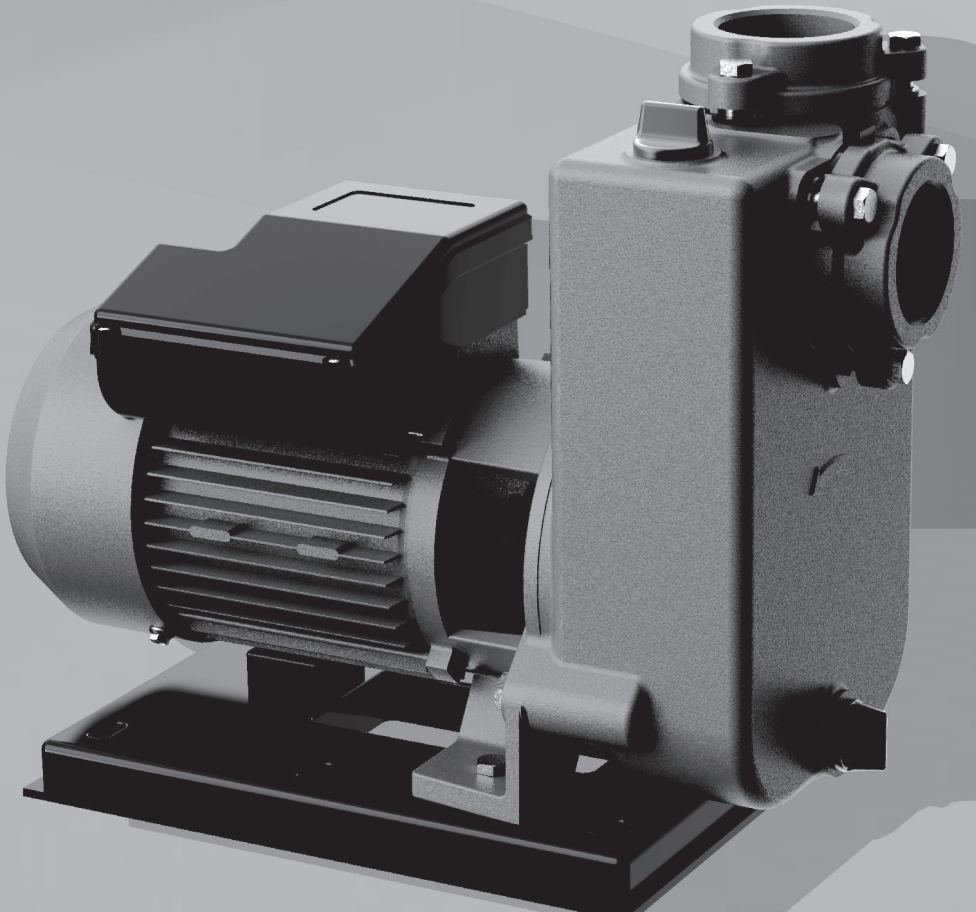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장흥군이 장흥담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 수질 유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예방 순찰을 강화해 나갔다. 장흥담은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홍수조절과 하천유지용수 기능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자원이다. 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단 어로행위, 낚시, 취사,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장흥군은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이상 매일 현장 점검 및 순찰을 하고 있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찰은 주간 및 야간,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특정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차단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엽사 17명 유해 야생동물 방지단 운영

장성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시작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된 전문가 집단이다. 장성군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모범엽사 17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9일 장성경찰서와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주관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준수사항 ▲총기 안전수칙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예방수칙 등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미 장성군 환경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포획 활동 시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